

영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강 기 숙(한국보육진흥원) · 한 유 미(호서대학교 교수)

최근 영아기 양육 및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보육 변인에 따라 각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라 영아의 인지발달 및 신체발달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영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12개월 이내 영아 13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영아 발달검사를 실시하였고, 어머니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11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Larsen과 Juhasz(1986)의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KCDI)를 변안한 조복희·정민자(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영아의 인지발달 및 신체발달은 박혜원·조복희·최호정(2003)이 표준화한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Korean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II, K-BSID-II)로 측정하였다. 이성과 같이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관계, ANOVA 등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인지발달은 평균 102.4점, 동작발달은 103.8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영아의 발달은 성별 및 아버지 어머니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보육경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평균 48%로 보통수준이었으며, 하위변인 중 사회성 및 정서발달 지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인지지식, 신체지식, 언어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연령, 학력, 직업)이나 보육경험 등에 따른 양육지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평균 3.72점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문항이 평균 3.89점으로 가장 참여가 높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장난감을 사다준다’ 문항이 평균 3.4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수입이 낮은 집단(M=3.42)보다 높은 집단(M=3.89)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았다($F=3.04, p<.05$). 넷째,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따라 영아의 인지발달 및 신체발달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5$ n.s., $r=-.06$ n.s.). 다섯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신체발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영아의 인지발달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0, p<.05$).

본 연구의 결과 보육경험은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질 높은 영아보육제도의 마련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